수정산업(유)
토목 상하수도 전기 설비 안전자재
상담 & 문의전화 062) 233-2045

전남매일
www.jndn.com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제8461호 대표전화 (062)720-1000

서광주농협
www.seogwangju.nonghyup.com
자연, 소비자, 지역사회와 상생
협동과 혁신으로 농업인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고객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여 함께 동반 성장하는 농협

톡톡뉴스

정부, 중기 제품인증 절차 간소화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제품 성능인증을 연장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인증 절차도 보다 간소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제품 성능인증 취득과 관련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제도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제품 성능인증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을 직접 검사해 인증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인증 제품에 대해선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조달청,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 중소기업의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조사했다.

우선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기존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픽 경제

무점포 소매 규모 46조원 넘어

올해 상반기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 배달판매 등의 무점포 소매 규모가 46조원을 넘으며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과 배달 판매 등은 성장세를 보이는 비대면 산업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더욱 주목을 받으며 상반기 증가 폭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무점포 소매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7조5,236억원) 증가한 46조2,108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13.0%(5조3,156억원)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벌초대행' 문의 급증

#1 김 모씨(54)는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인 보성을 찾아 전국에 흩어진 친척들과 모여 조상 묘를 찾아 벌초를 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우려해 벌초 대행업체를 이용하기로 했다.

#2 최 모씨(65)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종친들과 모여 함께 조상묘를 벌초한 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친목을 다져왔다. 무엇보다 남의 손에 벌초를 맡긴다는 것은 무성의하게 느껴져 직접 벌초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정부가 봉안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등 혹시 모를 코로나 확산으로 마을 어르신들게 폐가 될것이라는 우려에 대행 서비스를 선택하게 됐다.

장성산림조합 직원들이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한 묘지에서 벌초대행을 하고있다. /산림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추석명절 고향방문 자제 분위기 고조
산림조합 광주·전남, 전년비 85% 증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석 명절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벌초를 대행업체에 맡기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9일 산림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성묘, 봉안시설, 벌초 등에 관한 방역을 강화함에 따라 벌초대행서비스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산림조합 광주와 전남 22개 지부에 벌초대행 신청한 건수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4,832기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실적이 5,709기로 벌초대행신청기준 85%가량을 이미 넘어섰다.

해남산림조합의 경우 벌초대행 신청이 많았다. 특히 타지역에 거주한 조합원과 무연고자 벌초대행에 나선지 일주일여만인 지난 8일 신청을 마감했다. 지난해 650기 신청을 받은 반면, 이번 신청 8일만에 700기에 대한 벌초대행이 접수 됐다.

산림 중앙회 관계자는 "해남을 제외한 광주·전남 대다수의 조합에서 오는 21일까지 벌초대행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면서 "코로나 19 등의 확산에 따라 신청 수가 약 30~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발했다.

일반 민간 개별 벌초 대행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벌초대행 비용은 1기당 최소 5만원에서 지대가 험할 경우 15만원까지 받는다.

화순의 한 벌초대행업체 관계자는 "핵가족화 등으로 도시민들이 조상 묘를 돌보기 어려워진 탓에 대행 서비스가 매년 늘고 있다"면서 "올해의 경우 코로나 19 재확산 영향을 받아 가족·친척이 한날한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약 10% 가량 문의가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철수씨(55)는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는 겁이 날 정도다. 더군다나 시골의 경우 고령의 노인이 많아 방문자체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면서 "벌초대행을 두고 일부 어르신들은 반대하기도 했지만, 다수가 벌초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와 올해는 벌초대행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완도와 해남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역 방문 자제를 위해 산림조합, 농협 등과 손잡고 벌초대행 서비스를 받고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1기당 6만원인 기존가에서 약 40% 할인된 4만원을 적용해 서비스 한다.

전남 지자체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명절 군민과 향우가 함께 하는 '이동 멈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이에 동참하기 위해 대행서비스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광주신세계-신한카드
취약계층 참기름 지원

㈜광주신세계는 9일 신한카드와 함께 취약계층에게 지역 특산물 참기름 200세트를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경훈 광주신세계 영업기획팀장, 민만수 신한카드 광주지점장, 윤진우 푸드뱅크 대리가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6월에 신세계 전사 차원 동행세일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매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산지 특산물인 참기름, 멸치, 김 세트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바 있다.

㈜광주신세계는 9일 신한카드와 함께 취약계층에게 지역 특산물 참기름 200세트를 지원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이 행사를 통해 사은행사 종료 후 남은 재고 상품에 대해 반품하지 않고 광주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선옥 기자

전국기능경기대회, 광주시 대표 90명 참가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열리는 제2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시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미래를 여는 천년 전북, 기술을 꽃피우다'라는 슬로건으로 전북 군산, 전주, 익산 등에서 펼쳐진다.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은 코로나19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되며, 선수와 심사위원을 제외한 제3자의 경기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며 무관중 경기로 진행 될 예정이다.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는 종합 순위 10위 달성을 위해, 참가선수 전원 훈련비 지원, 전략 및 우수 직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쳤다. 이번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난 6월 열린 2020년 광주시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금형 등 33개 직종, 90명이 광주시 대표로 참가 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 메달, 소정의 상금과 해당 직종의 산업기사 자격시험의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박선옥 기자